

03

다양하게 발상하기

- 1 미술에서 발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 2 아이디어와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적절히 계획할 수 있다.

“
매~
나는 전화기로 만들어진 양이야~
어떤 아이디어로
내가 탄생했을까?
”



그리다 보면 열리는 생각들

철저한 계획에 따라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품이 가볍고 우발적인 드로잉에서 출발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발전해 나간다. 점이나 선 혹은 주변의 사물과 풍경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자.



▲ 허지은(학생 작품) 무제(종이에 수채/20.1×29.4cm) 우발적인 자국이나 스케치에서 시작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시켰다.



▲ 저지(Judge, Chris/아일랜드/1971~) 골웨이의 구름(사진에 펜 드로잉/15.7×12.6cm/2020년) 구름 사진에 몇 개의 선을 그려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미술가는 대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미술 작품은 미술가의 이러한 남다른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고정 관념을 뒤집는 유연한 사고를 발휘하여 새롭고 기발하게 표현해 보자.



▼ 피셔(Fischer, Urs/미국/1973~) 무제(혼합 매체/가변 크기/2011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는 생명체와 불을 붙이면 녹아 사라지는 양초를 연결 지어 표현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물에서 공통된 특징을 찾는 사고 과정을 유추하고 한다.



◀ 보더(Border, Terry/스위스→미국/1965~) 사랑의 건배(혼합 재료/가변 크기/2010년) 건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토스트(toast)'와 발음과 철자가 같은 식빵 '토스트' 이미지를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재치 있는 발상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재해석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재미를 준다.



▲ 올덴버그(Oldenburg, Claes/스웨덴→미국/1929~2022) **부드러운 변기**(비닐과 플렉시 글라스/142.6×79.5×76.5cm/1966년)



▲ 오펜하임(Oppenheim, Méret/스위스/1913~1985) **다람쥐**(맥주잔, 거품, 털/23×17.5cm/1969년)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발상 전략

미술 작품은 다양한 사고와 발상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다양한 발상 전략을 탐색하여 창의적인 작품으로 발전시켜 보자.

친숙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익숙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료를 바꿈으로써 친숙한 대상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해 보자.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황소 머리**(청동/33.5×43.5×19cm/1942년) 피카소는 자전거를 분해한 뒤 핸들과 안장을 합쳐 황소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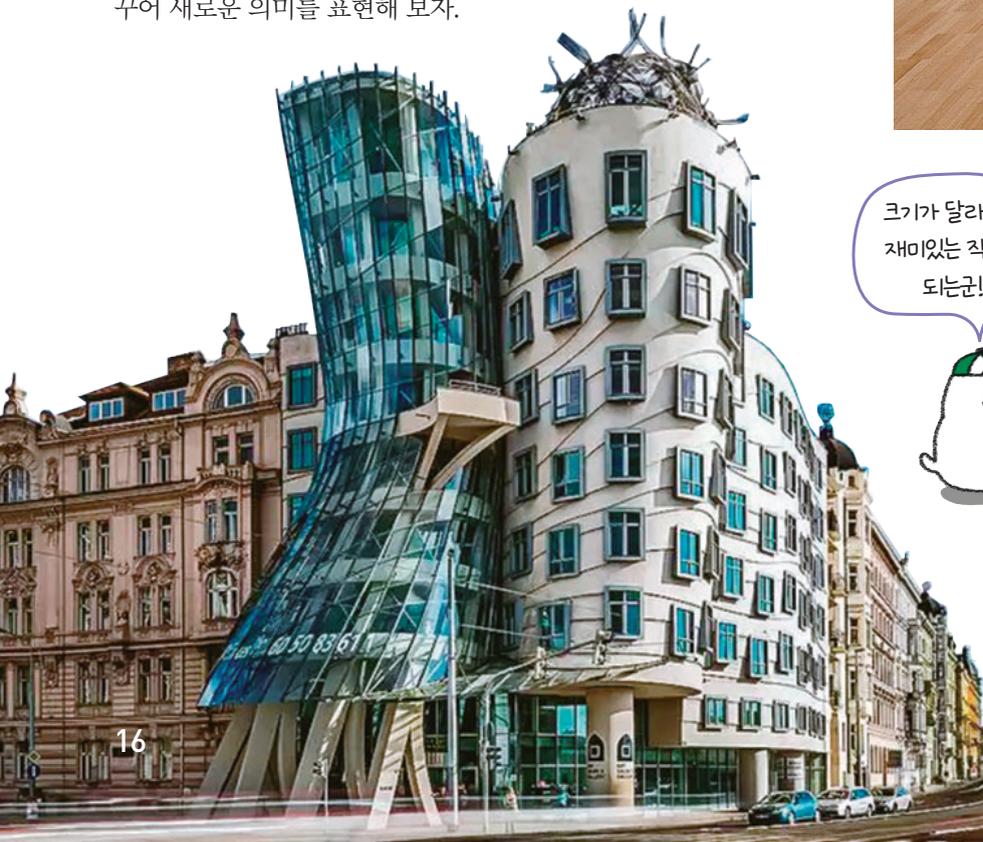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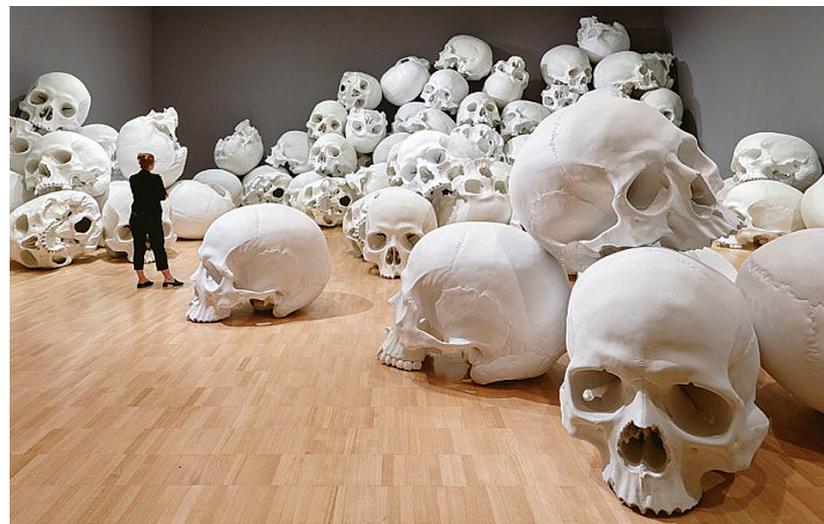
비틀거나 키우거나 줄이거나

대상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도 재미있는 발상 방법이다.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작품을 제작하면 감상자가 색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을 비틀거나 잡아당겨 모양을 왜곡하면 대상의 의미가 달라져 새로운 감각을 자극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대상의 크기나 모양을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표현해 보자.

▼ **뮤익**(Mueck, Ron/호주→영국/1958~) **대량의 덩어리**(유리 섬유에 채색/가변 크기/2016~2017년)

▼ **게리**(Gehry, Frank O./캐나다→미국/1929~) **밀루니츠**(Milunić, Vlado/체코/1941~2022) **춤추는 집**(체코/1994년)



크기가 달라지니 재미있는 작품이 되는군!



▲ 다나카 다쓰야(田中達也/일본/1981~) **미니어처 캘린더**: 2023년 2월 17일(디지털 사진/2023년)



◀ 오르테가(Ortega, Damián/멕시코/1967~) 우주적인 것(자동차, 와이어/가변 크기/2002년) 작가는 자동차를 조각조각 분해한 형태를 전시하여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만들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차가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하게 해 준다.

조각조각 나누기

대상을 분해하거나 재조합하면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재결합해 보자.

엉뚱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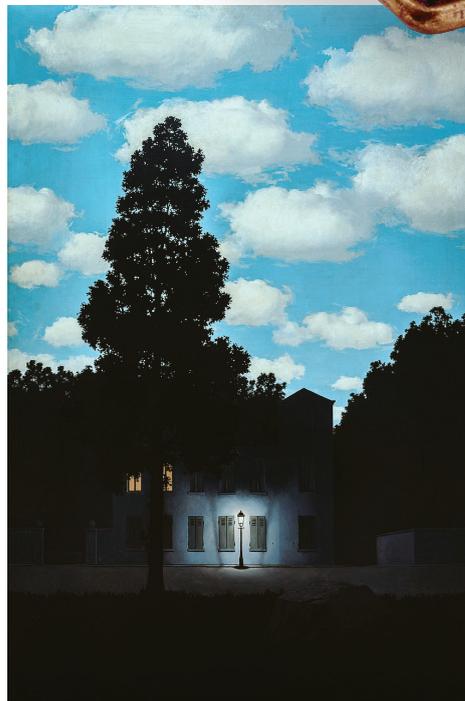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대상끼리 만나면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익숙한 대상을 강제로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 파우츠(Fouts, Nancy/영국/1945~2019) 지갑과 이빨(지갑, 틀니/7×6cm/2010년)



▲ 바베이(Barbey, Thomas/미국/1957~) 오 시트(디지털 합성 사진/가변 크기/2015년) 흰색 천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설산의 스키장으로 보이도록 합성한 사진이다.



▲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빛의 제국(캔버스에 유채/195.4×131.2cm/1954년)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아이디어

익숙한 대상에서 변칙이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주변 환경에서 친숙한 소재를 찾고 이를 작품으로 발전시켜 보자.



▲ 달리(Dali, Salvador/에스파냐/1904~1989)
기억의 지속(캔버스에 유채/24.1×33cm/1931년)

나는 꿈에서 본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지. 쿨~



내 여자 친구, 아니,
나의 뮤즈!

내가 저렇게
생겼어?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우는 여인(캔버스에 유채/61×50cm/1937년)



뒤상과 '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미술이 되었다

변기는 어떻게 미술 작품이 되었을까? 1917년, 한 남자가 상점에서 남성 소변기를 구입하여 서명을 하고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이 남자가 뒤상이다. 그는 작가가 직접 조각하거나 그린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미술이라고 불린다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변기는 현대 미술을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 되었고, 이 작품에 기반하여 재미있는 패러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샘'은 미술에서 기존 관념을 뒤집는 새로운 발상이 미술계 전체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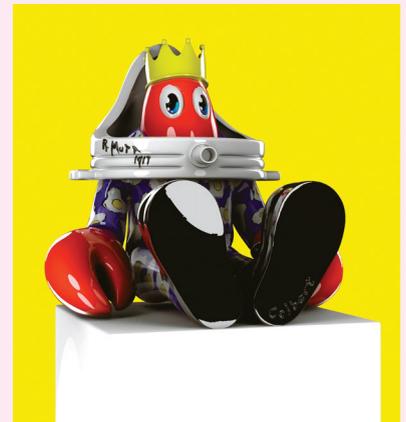


서양식 남성 소변기



▲ 뒤상(Duchamp, Marcel/프랑스→미국/1887~1968) 샘(레디메이드/높이 63cm/1917년 원작/1964년 재제작) 미술은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는 통념을 혁신하여 상품으로 판매되는 기성품을 미술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 러빈(Levine, Sherrie/미국/1947~) 샘: 마르셀 뒤상 이후(청동, 나무 좌대/37.9×63.2×37.9cm/1991년)



▲ 콜버트(Colbert, Philip/영국/1979~) 랍스터 샘(결함/버그/깨지는 화면) (비디오/20분/2021년) 샘을 랍스터와 함께 재미있게 패러디한 팝 아트 작품. 3D 영상이자 NFT 작품으로 다시 제작하였다.

◎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



▲ 클림트(Klimt, Gustav/오스트리아/1862~1918) **생명의 나무**(캔버스에 유채/102×195cm/1905년)

◎ 단순하게 표현하기



▲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네덜란드/1872~1944) **구성 II**(캔버스에 유채/88×115cm/1913년)

하나의 대상, 다른 표현

같은 대상도 제작자의 관점과 발상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하나의 소재가 다르게 사용되거나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들을 살펴보자.

◎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 박수근(한국/1914~1965) **나무와 두 여인**(하드보드 위 합지에 유채/27×19.5cm/1950년대 중반)

◎ 대조하여 표현하기



▲ 김명범(한국/1977~)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주목, 풀/가변 크기/2003년)

◎ 재료로 이용하기



▶ 페노네(Penone, Giuseppe/이탈리아/1947~) **문 나무**(삼나무/316×105×105cm/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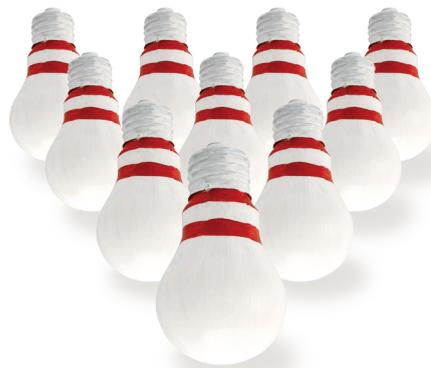


일상적인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기

※ 표현 재료

일상적인 물건, 접착 재료(풀, 목공용 접착제, 글루 건 등), 채색 재료(유성 매직, 아크릴 물감 등)

- 1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 가운데 다른 대상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른다.
- 2 재해석할 대상의 외관이나 용도를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선택한 사물을 분해한 뒤 재조립하거나 채색하여 완성한다.
- 3 친구들은 같은 주제를 어떤 아이디어로 발전시켰는지 비교해 보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왜 그것이 참신한 것으로 인정받는지 토의한다.



▲ 강예희(학생 작품) **볼링 핀**(폐전구에 아크릴 채색/13×8×8cm)



▲ 하보미(학생 작품) **푸른 고래**(페테이프 디스펜서에 아크릴 채색/6.5×9.5×1.7cm)

내가 평소에 자주 보던 물건이 이렇게 바뀌다니!



- 미술에서 발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가?
- 아이디어와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적절히 계획할 수 있는가?

창의성의 필수 요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 에드윈 랜드 -



01 조형 요소와 원리 들여다보기

» 조형 요소

- 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조형 요소
- 선: 사물의 윤곽, 형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얇고 긴 형태
- 면: 점과 선의 집합과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편평한 모양
- 형: 점, 선, 면 등의 경계선으로 알 수 있는 외형
- 색: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 주제와 감정,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 명암: 빛이 비추어 생기는 밝고 어두운 정도. 대상의 실재감, 입체감을 나타내는 데 큰 영향을 끼침.
- 질감: 만지거나 보아서 알 수 있는 작품 표면의 촉각적 느낌
- 양감: 물체의 부피, 무게감, 덩어리감

» 조형 원리

- 반복: 동일한 성질이나 규칙성을 가지고 요소를 배치하는 것
- 강조: 형태, 색채, 크기 등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
- 대비: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요소를 배치하는 것
- 대칭: 기준선을 토대로 서로 같은 형태를 띠는 것
- 비례: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상대적 크기 관계
- 균형: 둘 이상의 요소 사이에서 시각적으로 무게 중심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평형의 상태
- 리듬: 비슷한 요소를 연속적으로 구성하여 느껴지는 동적·정적·음악적 울동감
- 동세: 대상에서 느껴지는 실제적·잠재적 운동감이나 속도감
- 변화: 요소 간의 관계가 너무 단조롭거나 평이할 때 긴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는 것
- 조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요소가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인식되는 것
- 통일: 형태, 색, 재료 등이 일관성을 띠는 것

02 세상을 물들이는 색

» 색의 3속성

- 색상: 색과 색을 구분하는 특성과 그런 특성에 따른 색의 이름
- 명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밝은색은 명도가 높고 어두운색은 명도가 낮다.
- 채도: 선명하고 탁한 정도. 색의 순수함과 관련되는데, 선명한 색은 채도가 높고 탁한 색은 채도가 낮다.

• 유채색: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가진 색.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이에 해당한다.

» 색상환과 색입체

- 색상환: 색상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배열한 원형 도표



- 색입체: 색상, 명도, 채도에 따른 색의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배열한 입체 색표. 둘레는 색상, 세로축은 명도, 가로축은 채도를 기준으로 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색의 혼합

구분	가산혼합(RGB)	감산혼합(CMYK)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마젠타, 시안, 노랑
정의	빛의 혼합. 색이 섞일수록 밝아지는 특징이 있고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흰색이 된다.	색료의 혼합. 색이 섞일수록 탁해지는 특징이 있고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색이 된다.
실제 예시	LED 화면, 조명, 모니터, 스크린 등	물감, 크레파스, 색점토 등

구분	중간혼합 (시각적 착시에 따른 색 혼합)	
	회전 혼합	병치 혼합
정의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진 판이나 종이 등을 빠른 속도로 돌릴 때 색이 섞여 보이는 현상	둘 이상의 작은 색 점이나 선을 촘촘히, 가깝게 배치하고 멀리서 보았을 때 색이 섞여 보이는 현상
실제 예시	바람개비, 팽이, 돌림판 등	점묘화, 모자이크화, 카펫, 인화 사진 등

» 색채 대비

- 계속 대비: 둘 이상의 색을 시간 차이를 두고 연이어 볼 때 생기는 현상. 보색 간상과 유사하다.
- 동시대비
 - 색상 대비: 인접한 색의 영향을 받아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 보색 대비: 보색 관계인 두 색을 같이 놓을 때 더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

- 명도 대비: 명도 차이가 나는 배경 색의 영향을 받아 색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
- 채도 대비: 채도 차이가 나는 배경 색의 영향을 받아 색의 순수한 정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

» 색의 상징

구분	구체적 연상	추상적 상징
빨강	해, 불, 피, 딸기, 사과 등	위험, 금지, 정지, 뜨거움 등
주황	오렌지, 당근, 호박, 단풍 등	주의, 활력, 따뜻함, 거만함 등
노랑	해바라기, 파인애플, 금, 달 등	주의, 명랑, 생동감, 부유함 등
초록	새싹, 나뭇잎, 멜론, 오이 등	휴식, 신선함, 안전, 구호, 중립 등
파랑	물, 바다, 하늘, 얼음, 고래 등	상쾌함, 차가움, 냉정, 슬픔 등
보라	라벤더, 포도, 자수정 등	우아함, 화려함, 신비로움 등
검정	밤, 그림자, 까마귀, 숲 등	공포, 죽음, 침묵, 무거움 등
하양	눈, 구름, 설탕, 안개꽃 등	밝음, 차가움, 가벼움, 순수 등

» 오방색

우리나라의 정서와 사상이 담긴 색. 중국의 오행 사상에서 유래했으며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흑색의 다섯 색이 이에 속한다. 오방은 다섯 방위를 뜻하며 각각은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 오방 정색

- 황색** 중앙, 황룡, 흙, 부귀
- 청색** 동쪽, 청룡, 나무, 봄, 생명
- 백색** 서쪽, 백호, 쇠, 가을, 순결
- 적색** 남쪽, 주작, 불, 여름, 정열, 벽사
- 흑색** 북쪽, 현무, 물, 겨울, 어둠

• 오방 간색: 오방 정색을 혼합하여 만든 중간색

- 흑 + 적 = 자 고귀, 위엄 ● 백 + 적 = 홍 기쁨, 즐거움
- 백 + 청 = 벽 이상, 희망 ● 청 + 황 = 녹 평화, 성장
- 황 + 흑 = 유향 비옥함, 풍요

03 다양하게 발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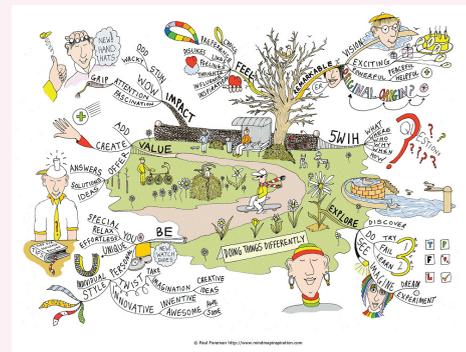
»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발상 전략

- 새롭게 바라보기: 익숙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료를 바꾸어 보기
- 확대, 축소, 왜곡하기: 대상을 크게 키우거나 작게 줄이거나 왜곡하는 등 변형하여 표현하기

- 분해, 재조합하기: 대상을 조각조각 나누거나 나눈 조각을 새롭게 다시 결합해 보기
- 엉뚱한 만남: 서로 다른 용도를 지닌 대상끼리 독특하게 결합하기

» 다양한 발상 기법

- 마인드맵: 화면 가운데에 중심 주제를 배치하여 가지가 뻗어나가듯 관련 내용을 표현하는 발상 기법이다.



▲ 포먼(Foreman, Paul/영국/1966~) **다르게 일하기**(종이에 혼합 재료/가변 크기/2013년) 자기만의 개성을 탐구하고 표현하며 다르게 일하는 방법을 탐구한 마인드맵이다. 다양한 색과 이미지로 마인드맵을 그리면 더욱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 브레인스토밍: 특정한 주제에 관해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뒤 그 중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규칙〉

- 비판하지 않는다.
- 자유분방함을 권장한다.
-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권장한다.
- 아이디어를 결합, 조합하여 개선한다.

- 체크리스트법: 질문을 활용하여 문제와 생각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의 예시: 스캠퍼(SCAMPER) 기법〉

S	대체하기(Substitute)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C	결합하기(Combine)	합치면 어떻게 될까?
A	조절, 적용하기 (Adjust, Adapt)	다른 데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 있을까?
M	변형, 확대, 축소하기 (Modify, Magnify, Minify)	구조를 변경하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면 어떨까?
P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Put to other uses)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E	제거하기(Eliminate)	없애면 어떻게 될까?
R	뒤집기, 재배치하기 (Reverse, Rearrange)	거꾸로 하거나 다시 배열하면 어떨까?